

## 鐵凝의 〈永遠有多遠〉에 대한 소고

- 여성인물의 욕망을 중심으로 -

최 은 정\*

### 〈目 次〉

- |                              |                      |
|------------------------------|----------------------|
| I. 들어가면서                     | IV. ‘어머니 되기’: 순응하는 정 |
| II. 白大省의 ‘호인 되기’: 영토화의<br>표상 | 주적 주체                |
| III. ‘西單小六-되기’와 -되기의 실패      | V. 나오면서              |

### I. 들어가면서

중국 신시기 이후 여성소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를 꼽는다면, 여성욕망의 발견에 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여성욕망 드러내기는 여성의 자기발견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성욕망 드러내기는 왕왕 몸적인 것, 즉 육체적인 욕망의 발견과 등치되는 경향을 보인다. 중국문단에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현상들이 이를 증명한다. 예컨대, 90년대 衛慧를 비롯한 일련의 젊은 여성작가들의 ‘신체서사’가 문단에 일으킨 반향이나, “木子美現象”<sup>1)</sup> 등이 그것이다. 이는 “나는

\* 계명대학교 중국어문학과 부교수

1) 2003년 20대 초반으로 알려진 한 여성이 木子美라는 필명으로 인터넷에 자신의 성경험을 일기 형식으로 올리면서 네티즌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하루 방문자가 6,000여명을 넘어서는 이 사이트는 방문자가 가장 많은 개인 사이트 중 하나가 되었다. 점차 사회적인 관심을 끌면서 찬반 논란이 거세어졌는데, 이를 가리켜 “木子美現象”이라 한다.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았지만 옹

욕망한다 고로 존재한다”<sup>2)</sup>의 철학적인 사유가 이제 여성을 읽는 하나의 코드가 되어 중국사회에도 깊이 스며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가부장제에서 여성 섹슈얼리티가 실지(失地)였음을 상기한다면, 이를 회복하여 몸의 탈영토화를 이루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이 여성의 자기발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여성욕망을 몸적인 것으로 한정해버리거나 축소시켜버리기도 한다. ‘몸’ 바깥에 위치한 여성의 다양한 욕망은 묻어버릴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여성서사에 나타나는 욕망의 다성성을 추적해보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본고는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鐵凝 서사를 그 연구대상으로 하여 여성 욕망의 다성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특별히 鐵凝 서사를 그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은 鐵凝 서사가 여성욕망에 관한 사유의 폭을 점점 확장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鐵凝은 1980년대 “三塚”와 《玫瑰門》 등을 발표하면서 王安憶과 더불어 여성욕망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가장 대표적인 작가로 꼽혔다. 鐵凝의 이 작품들은 여성성의 발견이라는 점에서 문단에 큰 반향을 일으켰었다. 이후에도 鐵凝은 지속적으로 여성의 욕망에 친착하면서 이로부터 여성의 다양한 생존양태를 드러낸다. 흥미로운 것은, 그녀가 단순히 몸적인 것에서 벗어나 여성 욕망의 다양성에 주목하고 이를 세심하게 포착해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때 욕망은 들뢰즈와 가타리의 욕망 개념에 따른 욕망이다. 그들에 따르면, 욕망은 ‘하고자 함’이다. 놀고자 함, 사유하고자 함, 말하고자 함, 무언가를 새로운 방식으로 하고자 함, 살고자 함 등등 모든 ‘하고자 함’이 바로 욕망인 것이다.<sup>3)</sup> 욕망은 끊임없이 새로운 환경, 새로운 접속을 향해 뻗어나가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호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던 그녀의 일기는 후에 《遺情書》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 2) 로지 브라이도터 지음, 박미선 옮김, 《유목적 주체: 우리시대 페미니즘 이론에서 체현과 성차의 문제》, 도서출판 여이연, 2004, 13쪽.
- 3) 이진경, 《천의 고원을 넘나드는 유쾌한 철학적 유목: 노마디즘1》, 휴머니스트, 2004, 129쪽.

욕망의 과정으로서 ‘-되기’는 “일차적으로 지배적인 것, 다수적인 것, 익숙하고 통념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다.<sup>4)</sup> 이렇게 보자면, 욕망의 과정으로서 여성인물이 보여주는 ‘-되기’의 몸짓은 그녀가 해체하고자 하는 정체성과 함께 새로이 구성하고자 하는 정체성의 실체를 담아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여성이 처한 현실과 유리되어 나타날 수 없다는 점에서 여성 삶의 ‘사실’을 밝혀내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들뢰즈와 가타리의 욕망이론이 여성욕망과 이로부터 배태된 삶을 들여다보기 위한 분석틀이 될 수 있는 까닭이다.

본고는 특별히 〈永遠有多遠〉을 연구대상으로 할 것이다. 〈永遠有多遠〉은 鐵凝이 1999년 잡지 《十月》에 발표한 것으로, 제2회 魯迅문학상과 제1회 老舍문학상을 받으면서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 주인공인 白大省의 어린 시절부터 네 번에 걸친 연애담을 그녀 사촌인 “나”의 시각에서 서술한다. 2001년에는 陳偉明 연출로 TV드라마로 방영되어 많은 관심을 끌기도 했다. 陳偉明은 여성작가들의 작품을 가지고 여성을 위한 드라마를 만드는 것을 본인의 임무라고 밝힐 정도로 여성작가 작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연출가이다. 특별히 이 드라마에 대해서 그는 ‘3.8 부녀절’을 앞두고 여성 시청자에서 바치는 선물이라고 했다.<sup>5)</sup> 소설 〈永遠有多遠〉이 독자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다가왔는지 일면이나마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물론, 鐵凝은 등단 이래로 여성의 내면세계를 잘 드러내는 작가로 인식되어 왔다. 그녀 자신이 “순수하게 여성적인 시선에서 벗어나고자 줄곧 노력해 왔다”고 고백하면서, “일종의 여성적인 시각 혹은 ‘제3성’의 시각을 갖고자 갈망했다”<sup>6)</sup>고 밝히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녀는 중국문단에서 여성문제를 가장 잘 형상화하는 대표적인 여성작가 중 하나로 주목받는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의 작품을 여성주의적인 시각에서 읽어내려는 노력만큼

4) 이진경, 《천의 고원을 넘나드는 유쾌한 철학적 유목: 노마디즘2》, 휴머니스트, 2004, 118쪽.

5) 〈電視劇〈永遠有多遠〉已經不遠〉, 2001年03月07日, 羊城晚報.

6) 鐵凝, 〈玫瑰門·寫在卷首〉, 《玫瑰門》, 春風文藝出版社, 1996, 1쪽.

나 탈(脫)여성주의적인 시각에서 보려는 노력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鐵凝 작품에 대한 연구 성과들을 검토하다 보면, 왕왕 동일한 작품에 대한 극명한 시각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鐵凝의 수많은 작품 중 〈永遠有多遠〉이 바로 그 대표적인 작품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작품에 대한 연구는 주인공인 白大省의 성격적 특성으로 나타나는 ‘인의(仁義)’에 천착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작품과 주인공에 대한 시각 차이를 극명하게 나타낸다. 예컨대, 謝有順은 白大省이 체현하고 있는 인의야말로 동방의 미덕이며, 이를 통해 우리 시대 존재하는 가장 큰 가능성으로서 선함을 찾아냄과 동시에 이 선함이 우리 시대의 골동품으로 변해버렸음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분석한다.<sup>7)</sup> 그런가 하면, 沈紅芳은 白大省의 인의가 가부장제문화에 의해 강제적으로 만들어진 규범의 결과라고 본다. 그녀는 이 작품이 白大省의 성장 과정을 통해, “내면이 풍부했던 한 소녀”가 어떻게 부권제 문화가 요구하는 바 “‘인의’의 ‘좋은’ 여성표본으로 퇴화’되어 가는지, 자신의 주체적인 위치를 버리고 부권제 문화의 객체적인 “物”로 변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한다.<sup>8)</sup> 요컨대, 연구자들의 가치판단에 따라 그녀의 인의로움은 인류의 송고한 자산이기도 하고, 가부장제 사회 양성불평등의 한 상징이 되기도 한다. 그녀의 삶이 비극적이라는 데 공감하지만, 거기에 인의가

7) 謝有順, 〈發現人類生活中殘存的善——關與鐵凝小說的話語倫理〉, 《南方文壇》, 2002년 6월. 이 외에, 範格劫(〈永遠的恐懼與期待——論鐵凝《永遠有多遠》中的人性探索和人文追求〉, 2012年第3期), 王彩(〈由時間變量向德行恒量置換的表達策略——對鐵凝中篇小說《永遠有多遠》的修辭解碼〉, 《名作欣賞》, 2011年2期), 郝雨(〈鐵凝近期小說論〉, 《河北師範大學學報》, 2001年1期) 등이 謝有順과 동일선상에서 白大省의 인의를 분석하고 있다.

8) 沈紅芳, 《女性敘事的共性與個性——王安憶、鐵凝小說創作比較談》, 河南大學出版社, 2005, 107쪽. 肖常緯(〈母性? 女性? ——對《永遠有多遠》中白大省的另一種解讀〉, 《貴州工業大學學報》, 2008年5月), 申景梅(〈男權話語下的女性“仁義”言說——論白大省的“仁義”悲劇〉, 《天中學刊》, 2008年第6期) 등도 沈紅芳과 비슷한 견해를 보여준다. 魏蘭은 여성비극이 여성자신에게 있다는 각도에서 주인공의 성격을 분석한다.(〈爲女性的隱痛而創作——鐵凝小說創作的另一種解讀〉, 《寧夏大學學報》, 2002年第1期)

설 자리를 잃은 당대 중국 사회를 투영하기도 하고, 주체성이 상실된 여성 삶의 귀결점이라는 냉정한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이들은 모두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바탕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렇게 주류를 이루는 상반된 두 줄기가 존재할 경우, 부지불식중 작품에 대한 프레임이 형성될 소지가 높다는 점이다. 이는 곧 다양한 각도에서 작품을 읽어내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다. 〈永遠有多遠〉에 대한 연구가 근 40여 편에 이를 정도로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비슷한 논조를 띠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그런데, 이 작품에 대해 작가 자신이 밝히고 있는 흥미로운 인터뷰 내용이 있다.

그저 착한 사람의 이야기만으로는 좋은 소설이 될 수 없습니다. 白大省이라는 인물을 통해 내가 탐색해보고 싶었던 것은 자기 자신을 바꾸길 원하는 인간의 내적인 욕구입니다. 白大省은 결코 지금 그녀의 모습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중략) 그녀는 고집스럽게 자신을 바꾸고자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그녀의 적극성이자 의의입니다.<sup>10)</sup>

인용한 글로부터 볼 때, 작가가 그리고자 하는 白大省의 특징은 ‘자신을 바꾸길 원한다’는 데에 있다. 鐵凝의 창작 특징을 여성인물과 그녀가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 사이의 ‘거리’를 묘사한다는 데에 두고 있는 陳曉明的 견해도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본다. 陳曉明은 鐵凝이 형상화한 여성인물을 ‘自我相異性’이라는 각도에서 분석하면서 白大省을 그 대표적인 인물로 꼽는다. 陳曉明이 의미하는 ‘自我相異性’은 ‘她者化’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她者’는 자신과 다른 특징을 가진 또 다른 내재화된 여성자아를 지칭한다. 그는 鐵凝 서사에서 白大省을 포함하여 이러한

9) 이는 中國知網(CNKI)에서 〈永遠有多遠〉을 제목으로 하여 검색했을 때 나온 숫자이다. 제목에 작품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 작품을 연구대상으로 한 논문들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을 것이라 예상된다.

10) 趙艷, 鐵凝, 〈對人類的體貼和愛——鐵凝訪談錄〉, 《小說評論》2004年第1期, 25쪽.

특징을 가진 여성인물들을 하나의 계보로 분석하면서, 이로부터 鐵凝 서사의 낭만주의적인 특징을 읽어낸다.<sup>11)</sup>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 역시 ‘자신을 바꾸길 원하는’ 白大省의 성격적인 특징이다. 들뢰즈와 가타리의 표현을 빌리자면, ‘다른 사람-되기’의 욕망인 셈이다. 다만, 陳曉明의 연구가 白大省의 성격적인 특징으로부터 鐵凝 서사의 미학적인 특수성을 포착해내고 있다면, 본고는 ‘자신을 바꾸길 원하는’ 白大省의 욕망에 보다 더 주목하고자 한다. 白大省의 욕망에 주목하여 그녀가 보여주는 ‘-되기’의 몸짓을 읽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현실과 만났을 때 나타나는 인물의 대처방식은 곧 鐵凝이 감지하는 여성 삶의 ‘사실’들일 것이다. 또한, 이렇게 鐵凝이 형상화하는 여성인물의 욕망에 주목하여 그녀의 서사를 읽어볼 때 우리는 여성생존서사로서 鐵凝 서사의 지형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 II. 白大省의 ‘호인 되기’: 영토화의 표상

白大省은 7,80년대 초반, 그녀가 일고여덟 살이었을 때 벌써 골목에 사는 어른들로부터 ‘어질다’는 말을 들었어요.(6쪽)

들뢰즈와 가타리에 의하면 우리 삶은 견고한 분할선에 의해 분할된 하나하나의 절편들, 즉 ‘영토’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영토란 “그램분자적인 거대 집합들(국가, 제도 계급)뿐만 아니라 집합의 원소로서의 개인들, 개인들 사이의 상호 관계로서의 느낌들”<sup>12)</sup>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견고한 분할선에 의해 다 분할되어 있다. 여기에서의 삶은 “통상적인 방식대로 통상적인 선분들을 통과하는 그런 삶”이어서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을 만큼 뻗한

11) <自我相異性與浪漫主義幽靈—試論《永遠有多遠》隱含的女性另類譜繫>, 《當代作家評論》, 2010年第4期, 76-94쪽.

12)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지음, 김재인 옮김, 《천 개의 고원》, 새물결, 2001, 372쪽.

방식으로 결정되고 계획되는 삶”이다. 이는 “개인의 뜻에 반하여 특별히 강요된 것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사회적 규범이나 관습, 통념과 상식의 형태로 습득된 습속(習俗)에 따른 경직된 삶”이자 “누구나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하는 몰적인 삶”이다.<sup>13)</sup> 白大省에게 부여된 삶이란 이러한 삶이다. 〈永遠有多遠〉이 白大省이라는 한 여자아이의 성장담이라고 할 때, 白大省의 성장담은 곧 한 평범한 여자아이의 ‘영토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들뢰즈와 가타리에 의하면, ‘영토화’는 “어딘가에 끌어들이거나 귀속시키는 것”<sup>14)</sup>이다. 그렇다면, 그녀의 ‘영토화’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이 어떻게 그녀의 욕망과 삶을 통제하고 있을까. 鐵凝은 이를 白大省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sup>15)</sup>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탐색은 보편적이고 통상적이라고 인식되는 사회적 도덕적 인식들, 규준들, 행위 규범들 등등이 여성성장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준다.

白大省과 주변 사람들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불평등함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의 ‘호인 되기’와 동일선상에 놓여 있다. 여기에서 ‘되기’는 ‘-되기’와 다르다. ‘-되기’가 욕망 실현의 과정으로서 어떤 대안적 삶을 창출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되기’는 반(反)-되기라 할 수 있다. 白大省의 ‘호인 되기’에서의 ‘되기’는 반-되기로, -되기의 개념을 빌려 필자가 그 왜곡된 의미를 전달하고자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白大省의 호인 ‘되기’는 ‘-되기’와 다른가. 그녀의 ‘호인 되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白大省은 그녀의 손윗사람이건 사촌언니이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양보”<sup>16)</sup>하는 사람이다. 성인이 된 서술자 ‘나’는 자신이 언니임에도 불구하고

13) 이진경, 《천의 고원을 넘나드는 유쾌한 철학적 유목: 노마디즘1》, 610쪽.

14) 같은 책, 217쪽.

15) 鐵凝은 소설에서 ‘관계’를 중시한다. 그녀에 따르면, 작가는 관계의 표현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적인 깊이를 드러낸다. 鐵凝, 〈關係—詞在小說中—在“蘇州大學小說家講壇”上的講演〉, 《當代作家評論》, 2003年第6期, 6쪽.

16) 鐵凝, 《永遠有多遠》, 人民文學出版社, 2006, 4쪽. 이하 작품 인용은 본문에 표기하기로 한다.

하고 왜 양보할 줄 몰랐는지에 대한 회한어린 의문을 던진다. ‘나’는 그것이 잘못임을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었지만, ‘白大省’이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음을 고백한다. 그런데 ‘나’의 고백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白大省이 그런 관계의 불공평함을 인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에 대한 고백이나 사과가 의미 없다는 것이다. 이는 白大省 스스로 이를 체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주지하다시피, 양보는 본인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바를 억누르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실 양보는 인간관계에서 미덕이며 존중되어야 하는 소중한 그 무엇이다. 그런데 그것이 부지불식중 강요되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양보하는 주체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주체성 상실로 이어질 소지를 안고 있다. 白大省에게서 보이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점이다. 들뢰즈와 가타리의 말을 빌리자면, ‘영토화’되는 것이다.

白大省에게 부여된 ‘영토’는 ‘외할머니’로 대변되는 가부장제 불평등한 젠더의식에 의해 재단된 것이다. 따라서 白大省의 ‘영토화’는 그녀와 외할머니의 관계에서 일면 배태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17)</sup> 白大省의 사촌인 서술자 ‘나’의 기억 속에서 외할머니는 절대적인 억압자이며 강권자이다. 그녀의 시선에 포착된 외할머니는 어린 손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 “잔인”한 할머니이다. 외할머니의 잔인함은 白大省의 욕망을 억누르는 데에 있다. “그녀의 간청은 반드시 부작용을 일으켰는데, 그것은 그녀가 白大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白大省은 당연히 어질고 의로워야 합니다. 과연 문발 안의 외할머니는 바로 버럭 화를 내셨지요. 애가 오늘 왜 이래, 어른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는 법이 어디 있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배은망덕한 년(중략)”(10쪽) 白大省이 만약 본인이 하고 싶은, 욕망하는 어떤 것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나아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요청이나 부

17) 曹鴻英은 白大省의 어진 성격이 결코 어린 여자아이의 천성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것은 ‘나’의 외할머니 등 남성중심문화의 규범과 훈육을 체화한 ‘할머니’들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고 분석한다. 〈究竟該愛她，還是該恨她—論雙性視閥中的白大省形象〉，《開封大學學報》，2007年3期，26쪽.

탁을 하게 되면, 그녀는 “배은망덕한 년”이 되는 것이다. “당연히 어질고 의로워야” 하는 그녀에게 있어 자신의 욕망이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간청이나 요청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白大省에 대한 외할머니의 이런 강요가 불합리한 것은 외할머니가 보여주는 불평등한 성별의식 때문이다. 서술자 ‘나’의 시선에 포착된 외할머니는 곁에서 자신을 수발든 白大省보다 손자인 白大鳴을 지극히 “편애”하는 불공평한 할머니이다. 외할머니와 白大鳴의 관계는 외할머니의 일방적인 베풀기에 있다. “외할머니는 그 앨 편애하셨어요. 외삼촌들이 매월 보내주는 용돈을 외할머니는 전부 白大鳴에게 주셨습니다. 언제고 白大鳴이 외할머니 침대 앞에 가면 외할머니는 베개 밑에서 돈을 꺼내셨지요.”(20쪽) 白大鳴은 화장실을 못 가는 그녀를 위해 요강을 비워준 적도 없고, 중풍으로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는 그녀를 부축해준 적도 없다. 반면, 白大省은 그녀 곁에서 온갖 수발을 다 들지만, 욕과 나무람밖에 없다. “내 기억에는 외할머니가 白大省을 나무라고 때렸던 시간도 제일 길었습니다. 특히 할머니께서 중풍에 걸린 후로는 白大省을 꾸짖는 걸 당신 삶의 가장 중요한 낙으로 여기셨어요. 야단치는 내용은 20년 동안 한결 같았는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바보니, 정신 나간 년이니 하는 따위의 말들이었지요.”(20쪽) 할머니의 이러한 꾸지람은 부지불식중 白大省이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도록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문제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즉, 외할머니의 이러한 불평등한 성별의식에서 기인한 관계의 불공정함이 白大省에게 그대로 흡수되어, 白大省이 다른 사람들과 맺게 되는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녀는 본인의 잘못 여부와 상관없이 행해지는 비난이나 질책, 심지어 불합리한 요구 등에 대해 어떤 반응도 없이 고스란히 받아들여지게 되고, 거의 본능적으로 양보, 희생, 헌신 등을 선택한다.<sup>18)</sup> 그녀가 보여주는 양성 관계, 남동생 白大鳴과의 관계, 심지어 사촌 여동생과의 관계가 이를 증명

18) 曹鴻英, 같은 글, 27쪽.

한다. 이들 관계에서 보여주는 양상이 ‘白大省’이라는 인물의 지형도를 그리게 되고, 그녀는 그 안에 갇히고 마는 것이다. 그 지형도에는 인의로 포장된 어리석음이 놓여 있음은 물론이다. “외할머니는 자주 白大省이 어리석다고 욕했습니다.”(8쪽)

그런데, 왜 서술자인 ‘나’는 白大省과 함께 외할머니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白大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걸까. 白大省과 ‘나’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이에 대한 답을 추측케 하는 ‘나’의 흥미로운 서술이 있다.

나는 예쁘고 그녀처럼 그렇게 어리석지도 않잖아요.(8쪽)

그녀는 평범하게 생겼어요. 뺏뺏한 생머리 단발에 치장도 잘 하지 않고 옷도 남성용 셔츠를 선호했습니다. 키는 작다고 할 순 없지만, 허리가 길고 다리가 짧은데다 풍만하다 못해 축 처진 엉덩이 때문에 걷는 모습이 우둔해 보였지요. (18쪽)

그녀는 항상 자기 가슴이 이런 모양인 것에 대해 속상해했었어요. 크다 작다는 말로 白大省의 가슴을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녀의 가슴은 윤곽이 모호한 그냥 두 무더기로, 약간은 좀 덜 모아진 모양이에요. 힐끗 보면 나은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34쪽)

‘나’의 서술에서 본인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나는 예쁘고~”이다. 반면, ‘나’가 묘사하는 白大省은 평범한 외모의 소유자일 뿐더러 소위 여성스러움, 여성다움과는 거리가 멀다. 어린 시절 ‘나’의 관점에서 ‘내’가 白大省보다 예쁜 것은 ‘나’에 대한 白大省의 복종이나 양보 또는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근거가 된다. 성인이 된 ‘나’의 시각에서도 白大省의 ‘평범한 외모’와 여성스러움의 결핍은 白大省에게 있어 일종의 단점이다. 이는 ‘내’가 여성을 바라보는 남성적 시각에 이미 포섭되어 있음을 설명한다. 주지하다시피, 남성중심 문화에서 여성은 ‘보여지는’ 존재이며, 이때 여성의 몸은 그녀의 존재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부호이다. 白大省의 ‘평범한 외모’와 여성스러움의 결핍에 대해 ‘내’가 갖는 일종의 우월감과 동정어린 시선

은 이러한 관념이 이미 여성주체에게도 체화되어 스스로 자신을 ‘보여지는’ 주체로 인식하고, 이에 따라 그 존재가치를 판단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요컨대, 白大省은 여성을 물화하는 몸의 정치학이 재현되는 공간이다. 문제는 자신의 외모와 여성스러움의 결핍에 대해 白大省 스스로도 “속상해한다”는 점이다. 여성으로서 白大省이 낮은 자존감을 배태하게 되는 또 하나의 단초임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녀의 낮은 자존감은 좋아하는 사람의 관심을 바라면서도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영원히 그렇게 앉을”(10쪽) 소극성, 동등하게 사랑하길 원하고 그것을 부러워하면서도 “그가 날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그를 더 많이, 더……” 사랑하게 될 거라는 예감, 그녀가 자신에게 설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쓰리게 하는 낮은 기준”(22쪽)에서 읽을 수 있다.

이러한 白大省에게 ‘호인 되기’는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었을 것이다. 왜 그런가. 남성중심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또 다른 미덕이 ‘인의’, 그리고 거기에 세트처럼 붙어 있는 양보, 희생, 헌신 등등이기 때문이다. 이는 그녀가 보여주는 양성관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그녀는 매번 남자들에게 좋은 ‘여자’가 아닌 ‘좋은’ 여자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좋은’ 여자는 여성으로서 성별적인 특징이 거세되어 있다. 그녀를 바라보는 남자들의 시선에는 “욕망도 성도 없다”.(25쪽) 그녀는 자신이 만나는 남자친구를 “시중들고” 이를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긴다.(23쪽) 이것으로부터 그들과의 관계를 결정짓고자 하는 것이다.

이로 보건대, 그녀의 ‘호인 되기’는 관계형성을 위한 일종의 선택인 셈이다. 이를 위해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고 길들인다. 자신의 집을 욕심내는 남동생을 나무라고 그를 내쫓은 뒤 그녀가 느끼는 죄책감은 그녀가 이미 자신의 욕망을 부정하고, ‘호인’이라는 외부적 기준에 길들여져 있음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녀의 ‘호인 되기’가 ‘호인-되기’가 될 수 없는 이유이다. 즉, 그녀의 가장 큰 성격적 특징인 ‘인의’는 욕망의 억누름에 다름 아니며, ‘호인 되기’는 ‘영토화’의 표상인 것이다.

### Ⅲ. ‘西單小六-되기’와 -되기의 실패

지금 내 모습이라는 이런 좋은 사람은 내가 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야!(42쪽)

白大省에게서 주목할 부분은 그녀의 강한 자기부정 욕망이다. 상술했듯, 鐵凝은 “자기 자신을 바꾸고 싶은” 白大省의 욕망을 그녀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는다. 즉, 그녀는 ‘호인’이라는 외부적 기준으로부터 탈주하고자 한다. 그녀의 이러한 욕망은 西單小六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그렇다면, 西單小六은 어떤 인물일까. 鐵凝은 그녀가 모든 점에서 白大省과 아주 차이가 크다고 설명한다.<sup>19)</sup> 다음 예문을 보자.

그녀는 단정한 여자아이들이 지키는 규율은 다 멸시했습니다. 변발을 단단하게 땀야 하는데, 언제나 느슨하게 땀았지요. (중략) 골목을 걸어갈 때면 사람을 미혹시키는 그녀의 그 몸매가 한껏 드러났습니다. 그때는 향아리 바지를 입던 시대였습니다. 西單小六은 어떤 방법으로 바지를 고쳐 입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바지는 그녀의 탄력 있는 엉덩이를 꼭선이 다 드러나도록 감싸주었습니다.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몸은 곳곳하게 쭉 세우고 걸었지요. 느림과 곳곳함의 기묘한 결합을 이용해서, 그녀는 자신의 걸음걸음에 안하무인식의 오염함을 더했습니다. 자주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다녔는데, 발가락엔 봉숭아 꽃잎으로 나쁜 풍습인 살구빛 물을 들였어요. 그때 당시 골목 어디에서건 북경 어디에서건 감히 발톱에 물들인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오직 西單小六 뿐이었지요. (중략) 그녀는 西單 폐거리라 불리는 한 건달들 모임에 들어갔습니다. (중략) 모임의 모든 남자들과 잠을 자는 게 그녀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중략)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즐거워서였어요. 그들이 그녀를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남자들로 하여금 그녀를 좋아하게 만들고, 그녀를 위해 싸우게끔 하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13쪽)

19) 鐵凝, 위의 글, 6쪽.

인용문에서 나타나는 서술자 “나”가 기억하는 西單小六은 “단정한 여자 아이들이 지키는 규율은 다 멸시”하고, “사람을 미혹시키는” “요염함”을 지니고 있으며, 남자들을 선동하는 능력이 있다. 白大省이 소위 ‘할머니’들에 의해 재단된 영토화의 전형이라면, 그녀는 이로부터의 탈(脫)영토화를 보여준다. 이런 그녀를 ‘할머니’들은 “여우같은 계집”이라고 욕했고, “우리가 나쁜 것을 배울까 봐, 우리들이 西單小六 같은 그런 여자가 될까봐 걱정”하고, 그녀와의 만남을 차단한다. 왜 그런가. “단정한 여자아이들이 지키는 규율” 바깥에 놓인 西單小六은 소위 천사와 악마로 이분화된 가부장제하 여성상 안에서 악마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악마형 여성은 가부장제의 여성에 대한 혐오와 두려움이 투사된 대상으로, 성적인 매력을 바탕으로 남성을 과멸시키는 여성이다. 이런 악녀형 여성에 대한 가부장제 문화의 배타적인 시선은 서술자 “나”가 西單小六과 같은 그런 여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자신의 마음을 “죄악감으로 충만한 망상”이라고 표현하는 데에서 잘 드러난다. 西單小六에 대한 “나”의 이중적 시선—승배와 두려움은 白大省의 놀이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그녀는 자주 화장거울 앞에 서서, 西單小六의 모습을 모방하여 짧은 머리를 느슨하게 땅고, 몇 번이고 살짝의 머리카락 몇 움큼을 잡아당겨냈습니다. 그런 다음 뒷방 문틀에 기대어 눈꺼풀을 내리깔고 그렇게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그 다음엔 문틀을 떠나 다시 몸을 비비 꼬며 방으로 들어가 그렇게 몇 바퀴를 돌았대요. 거울 속의 자기를 보면서 극도로 흥분하기도 하고 몰래 못된 짓을 하기도 하고 자신감에 넘치기도 하고 맥이 풀리기도 하고 그랬대네요. 얼마나 이런 모양으로 집을 뛰쳐나와 거리로 나가고 싶었는지 모른답니다. 당연히 그녀는 그런 모습으로 집을 뛰쳐나와 거리로 나온 적이 없었어요. 나를 포함해서 이제껏 누구도 그녀가 西單小六을 흉내 내고 있는 이상한 모습을 본 적도 없고요.(17-18쪽)

인용한 부분은 白大省이 어린 시절 자신의 우상이 西單小六이었고 그녀와 같은 여자가 되고 싶었다는 갈망을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다. 어린 시절

白大省은 西單小六과 같은 여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그녀를 흉내 내는 행위를 통해 구체화시킨다. 그러나 白大省의 그런 모습을 누구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은 西單小六-되기에 대한 白大省의 두려움을 설명한다. “나”가 느끼는 “죄악감”과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방식으로 西單小六을 모방할 때 白大省은 과연 ‘-되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 물론 모방은 되기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들뢰즈 가타리에 의하면 “모방은 스스로 붕괴한다. 모방하는 자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생성에 들어가며, 이 생성은 자신이 모방하는 것의 부지불식간의 생성과 결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20)</sup> 그러나 이들은 근본적으로 모방이 되기라는 것에는 회의한다. 때문에 “되기(=생성)는 유사성도, 모방도, 더욱이 동일화도 아니다”<sup>21)</sup>라고 하면서, “미메시스라는 개념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sup>22)</sup>이라고 단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白大省의 ‘西單小六-되기’는 실패를 내장할 수밖에 없다. ‘西單小六-되기’란 西單小六처럼 머리를 느슨하게 땅거나 발가락을 물들이거나 그녀처럼 걷는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西單小六은 西單小六이라는 한 인물이 대변하는 분자적 여성을 의미한다. ‘할머니’들이 재단한 틀에 의해 몰화된 여성이 아닌, ‘오직 ~뿐’인 여성인 것이다. 때문에 白大省이 西單小六이라는 구체적인 인물을 틀로 삼고 그녀를 모방하고자 할 때, 白大省의 -되기는 이미 실패를 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모델이나 우연 없이 발명되고 그려져야” 하는 것이 탈주선(도주선)임을 강조한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도주선을 발명해야만 하는데, (중략)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것 아닐까?”<sup>23)</sup> 거울 앞에서의 白大省의 모습은 현실의 나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과 함께, 현실의 모델에 매달려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탈주

20) 들뢰즈, 가타리, 위의 책, 576쪽.

21) 같은 책, 452쪽.

22) 같은 책, 576쪽.

23) 같은 책, 386쪽.

선을 그려내는, -되기로 나아가는 노정이 얼마나 고된 것인지를 예측케 한다. 무엇보다 모방이 문제적인 이유는 자기 자신의 상실로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거울 앞에서 그녀는 오히려 “평소보다 배나 더 보기 싫은 자기”를 보면서 깜짝 놀라고, “본인이 아닌 것 같아” 낮설어한다.(33쪽) 모방이 안고 있는 한계인 것이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西單小六의 탈영토화 이면에 숨은 함정이다. 표면적으로 볼 때, 그녀는 분명 ‘할머니’들이 대변하는 다수성의 표준적인 삶으로부터 부단한 탈주를 감행하면서 대안적인 삶의 방식들을 창출한다. 자신의 몸을 쾌락의 장으로 재편성함으로써 생산의 도구로 코드화된 여성 육체의 탈영토화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 이를 가장 전형적으로 설명한다. 이로부터 “최소한 그녀보다 열 살은 어려보이는 남편”이 있는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술집의 여사장”(16-17쪽)으로 등장한 그녀는 통상적인 여성들의 삶과는 다른 삶의 지형을 그려낸다. 즉, 鐵凝은 西單小六을 통해 가부장제에서 천사와 악마로 이분화된 여성성의 경계를 가로지르고 있는 것이다. 상술했듯, 악마형 여성에는 남성을 과멸시킨다는 두려움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왕왕 부정적인 이미지로 형상화된다. 하지만, 鐵凝은 그녀를 열 살 연하의 남편을 둔 술집 여사장으로 형상화하면서 “수수께끼마냥 실패하지 않는 여인”(17쪽)으로 규정한다. 가부장제에서 이미지화한 여성상의 틀을 깨고 있는 것이다. 이런 그녀에 대한 동성들의 선망어린 시선은 鐵凝이 은연 중 그녀를 여성의 로망으로 이상화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이 선망의 시선이 사회에서 일정 정도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여성들-성인이 된 白大省은 비록 양성관계에서는 실패를 거듭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성공한 여성이며, ‘나’는 사랑과 사업 두 가지를 다 이룬 일면 가장 표준적인 삶을 구현하고 있다—의 시선임을 볼 때, 鐵凝은 이를 통해 여성이 보는 여성의 이상적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유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西單小六’은 여성에게 부여된 또 다른 억압이라는 데에 여성 삶의 불편한 진실이 담겨 있다. ‘西單小六’은 결국 여성을 물질화하는 남

성 중심적인 가치체계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적 기준에 부합하는 또 다른 장이기 때문이다. 그녀에 대한 묘사를 보면 白大省과 완전히 상반된다. 그녀는 “축축하고 커다란 눈”에 “긴 속눈썹과 강렬한 검은 눈동자”를 지녔다. 뿐만 아니라, “천부적으로 요염한 분위기에 남자를 유혹하는 자태”로, “황갈색 피부는 매끄럽고 보드라웠으며, 뇌쇄적인 단내를 발산”한다.(13쪽) 西單小六의 자유분방함과 거리낌 없는 행위 방식들이 바로 그녀의 아름다운 몸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은연중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白大省의 여성답지 못한 몸과 이로 인한 그녀의 자신감 부재, 西單小六에 대한 부러움 등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白大省이 왜 ‘西單小六-되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또 다른 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평범한 외모, 처진 엉덩이, 납작한 가슴은 여성다움이라는 남성적 가치관이 만든 또 다른 기준에 장애로 작용하여 그녀가 ‘西單小六’처럼 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西單小六이 ‘할머니’들이 재단한 영토로부터 탈영토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여성에 대한 또 다른 남성적 시선에 부합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여성 삶의 아이러니가 白大省의 ‘西單小六-되기’의 실패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西單小六’을 추구하는 ‘나’와 白大省 역시 여성을 물질화하는 남성적 시선에 포섭되어, 보여지는 존재로서 자신을 내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白大省이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시도로 화장품과 옷을 바꾸려고 하는 모습에서 나타난다. 화장품과 옷은 여성답지 못한 그녀를 여성답게 바꿔주는 중요한 매개이다. 그 ‘여성답게’가 남성적 시선에 의해 규정된 여성다움임은 물론이다.

결국 ‘西單小六’과 ‘白大省’은 소비주의 시대 한층 복잡해진 여성생존의 현실을 드러내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의 몸은 교환가치로서 의미를 갖고 여성들 스스로 자의든 타의든 그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여성은 보여지는 자신을 즐기고 그 시선에 자신을 맞추어 간다. 西單小六의 ‘성공’과 그녀에 대한 白大省의 선망을 통해 鐵凝이 짚어내고 있는 여성 삶의 사실이 바로 여기에서 읽혀진다.

#### IV. ‘어머니 되기’: 순응하는 정주적 주체

그녀는 영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일생동안 변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으로는 아마도 영원히 변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44쪽)

가부장제 문화에서 그 문화적 사회적 통념과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여성이 자신의 모습에 반(反)하는 어떤 모습을 갈망하였지만, 그렇게 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白大省의 ‘어머니 되기’는 일면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白大省의 ‘어머니 되기’는 옛 남자친구 郭宏과의 결혼을 통해 완성된다. 郭宏은 북경에 머무르기 위해 白大省을 이용하고 그녀에게 얹혀살면서 무위도식하다 새로운 여자 친구를 만나자 白大省을 버리고 떠난 남자이다. 이런 그가 어느 날 딸을 데리고 白大省을 찾아온다. 郭宏은 그녀에게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42쪽)이라고 하면서, 자신과 결혼해줄 것을 부탁한다. 白大省은 그녀를 향한 “좋은 사람”이라는 郭宏의 말을 강하게 부정하면서 그를 거부한다. 그리고 그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화장품을 사고 입어본 적이 없는 옷을 사는 것으로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과 자기 변화의 욕망을 가시화한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자신이 변화길 원했던 그런 사람으로는 영원히 변하지 못할 거라는 말과 함께 郭宏과 결혼하기로 결정한다. 주의할 것은 郭宏과의 결혼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郭宏에 대한 애정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녀는 소파 틈에서 쪼글쪼글하고 피뢰죄한 작은 꽃무늬 손수건 하나를 찾았다고, 틀림없이 이를 전 郭宏이 아이를 안고 그녀를 찾아 왔을 때 잃어버린 것일 거라고, 분명 郭宏의 그 아이 손수건일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녀는 그 작고 더러운 손수건 때문에 마음이 한참이나 불편했대요. 그 손수건은 온통 젖비린내투성이였대지요, 그녀는 그것을 깨끗이 빨았는데, 빠

는 내내 그 아이가 불쌍했습니다.(44쪽)

상술한 인용문으로 보건대, 白大省의 마음을 자극하여 郭宏과 결혼하기로 결심하게 만든 것은 그가 데려온 아이이다. 다시 말해, 그녀의 모성이 현재 자신의 모습을 그토록 거부하던 그녀를 郭宏이 말한 “좋은 사람”으로 돌아오도록 만든 것이다. 이로 보자면, 白大省의 인의, “好人”의 “好”는 결국 희생, 헌신과 돌봄을 기저로 하는 모성이다. 그녀의 어머니 되기는 그 모성의 구체적인 체현인 셈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白大省의 어머니 되기에 숨어 있는 부득이함이다. 白大省은 외친다. “지금의 나는 내가 되고 싶었던 내가 결코 아니야!”(42쪽) 그렇지만 그녀는 “자기가 되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는 영원히 될 수 없을 거야.”(44쪽)라는 절망적인 깨달음과 더불어, 결국 이미 보여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인 ‘좋은 사람’—어머니 되기로 자신의 정체성을 귀결 짓고 마는 것이다. 白大省의 ‘어머니 되기’가 ‘어머니-되기’로 나아갈 수 없는 이유이다. 생성이 아닌 정주화(머무름). 다시 말해, 白大省의 ‘어머니 되기’는 가부장제 이분화된 여성상을 내면화하여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성 삶의 현실을 투영한다고 볼 수 있다. ‘西單小六’이 되기를 원하지만 될 수 없는 수많은 白大省 같은 평범한 여성들이 부합해가는(혹은 부합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또 다른 남성적 시선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鐵凝이 보는 여성 삶의 ‘사실’인 것이다. 이로부터 鐵凝은 여성-되기의 요원함을 반영한다. 여기에서 ‘여성-되기’란 ‘할머니’에 의해 재단된 영토에서 벗어난, 즉 젠더화된 여성성에서 벗어난 여성-되기를 의미한다. 상술했듯, 鐵凝은 남성적 시선에 붙잡혀, 보여지는 자신을 내면화한 여성 심리를 아주 냉정하게 짚어낸다. 鐵凝은 보여지는 자신을 내면화한 여성들이 ‘西單小六’이 될 수 없을 때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방편은 ‘어머니’로서의 자신이라고 본 것이다. 白大省의 ‘어머니 되기’에서 鐵凝의 이러한 인식이 읽혀진다. 이로 보자면, 鐵凝은 白大省의 어머니 되기를 통해 여성에 대한 남성의 이중적인 시선을 가시화하고, 여기에 간혀 ‘여성-되기’에 실패하고

있는 여성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더붙이고 싶은 것은 이와 더불어 나타나는 鐵凝의 또 다른 시선이다. 그녀는 白大省의 어머니 되기를 통해 물질화된 사회,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역할을 상실해가는 사회, 그 사회를 구원할 대안으로서 ‘어머니’를 호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鐵凝은 서술자 “나”의 입을 빌어 白大省의 ‘어머니 되기’에 대해, 이러한 “약도 없는” 白大省의 모습을 미워하면서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45쪽) 이는 鐵凝이 白大省이 안고 있는 자기부정 욕망의 합리성을 인정하면서도 “오로지 그녀가 변하지 않아야만 인류는 더 인류 같고 삶은 더 삶다울 것이며 도시의 체제는 더 투명하고 도시 상황은 더 평안할 것입니다”<sup>24)</sup>라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갈수록 물질화되어 점점 인성이 차가워가는 사회에서 白大省은 분명 빛 같은 존재이고, 그 성격적 기저를 이루는 ‘모성’ 또한 소중한 가치 중 하나임에는 분명하다. 적지 않은 연구자들이나 독자들이 白大省을 통해 지금은 그 존재조차 희미한 인간사회의 선함을 발견하고 거기에 보존해야 할 동방의 아름다운 미덕이라는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여성에게 있어 모성은 자의적인 선택이어야 한다. “지금의 나는 내가 되고 싶은 내가 아니야!”라고 절망적으로 외치고 있는 白大省에게 “네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넌 변할 수 없어, 영원히.”(42쪽) 라고 말하는 것은 잔인하다. “그녀가 변하지 않아야 인류의 삶이 더 인류의 삶답다”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이다. 누가 白大省처럼 되려고 하겠어요?<sup>25)</sup>라는 작가의 반문은 일면 白大省에 대한 이러한 바람이나 기대가 왜 이기적이고 잔인한 것인지에 대한 답을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되기’로 ‘어머니’ 같은 자신으로부터 탈주하고 싶었던 한 여성의 자기 변화 욕망을 귀결 짓고 있다는 것은 鐵凝이 은연 중 현신과 희생, 돌봄을 기저로 하는 모성의 발현을 통한 여성 정체성 수립을 기대하고 있으며, 가부장제 ‘어머니’

24) 鐵凝, 〈永遠的恐懼和期待〉, 《小說月報》, 1999年2期. 謝有順, 위의 글, 44쪽, 재인용.

25) 朱育穎, 〈精神的田園-鐵凝訪談〉, 《小說評論》, 2003年3期, 52쪽.

라는 심리적 유산을 작가 역시 간직하고 있음을 내비치는 것이다.

## V. 나오면서

이상, 白大省의 자기 변화 욕망에 중점을 두고, 그 욕망의 의미와 욕망의 실현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성생존의 일면을 살펴보았다.

白大省의 욕망은 호인 되기, 西單小六-되기, 어머니 되기의 과정을 거친다. 그녀의 ‘되기’는 의심할 나위 없이 자신을 규정하는 틀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몸짓이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고 나아가 어떤 대안적 삶을 창출하지 못하고, 결국은 가부장제 문화의 틀에 속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왜곡된 ‘되기’라 할 수 있다. 鐵凝은 이를 통해 여전히 ‘보여지는’ 존재이며, 이를 내면화한 여성 삶의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이로 보자면, 여성생존현실과 이를 대하는 여성들의 자기 인식에 대한 鐵凝의 시선은 상당히 냉정하고 객관적이다. 여성생존서사로서 鐵凝의 서사가 갖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한편 ‘어머니 되기’로 白大省의 자기변화 욕망을 귀결 짓고, 나아가 이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것은 ‘어머니’에 내재된 가부장제 사회의 오래된 심리적 기대를 여성에게 투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문제적이라고 본다. 이는 ‘어머니’에 내재된 문화적 심리적 의미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러한, ‘어머니’가 내재하는 가부장제 문화적 심리적 기대가 여성에게 억압이 될 수 있다는 다소 낡은 담론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는 것을 鐵凝이 간과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것이 인류가 지키고 보존해야 할 ‘선함’으로 포장되어 나타남으로써 가부장제가 여성에게 부여한 ‘영토’에 정주하도록 수많은 ‘白大省’들을 이끌 수도 있기 때문이다.

<References >

- Tie Ning. *How Far Is Forever*. Beijing: people's Literature Publishing House, 2006.
- Gilles Deleuze, Felix Guattari. *Thousands of plateaus*. Seoul:Saemulgyeol, 2001.
- Hao Yu, "On Tie Ning's recent novels", *Journal of Hebei Normal University*, 1(2001):78-83.
- Wei Lan, "Writing for women's hidden pain: another way to read Tie Ning's noble". *Journal of NingXia University*, 1(2002):81-85.
- Xie YouShun, "To find a line in the life of mankind: fictional narrative in Tie Ning's nobles". *Southern Cultural Forum*, 6(2002):42-45.
- Tie Ning, "Relationship in novel". *Contemporary Writers Review*, 6 (2003):4-6.
- Zhu YuYing, "Garden for mind: Tie Ning's interview". *Novel Review*, 3 (2003):48-54.
- Lee, Gin Gyeong. *Pleasant Philosophical Nomad Crossing Over Thousand Plateau: nomadism 1-2*. Seoul:Humanist, 2004.
- Rosy Bridotti. *Nomadic Subjects*. Seoul:Yeyuiyeon, 2004
- Zhao Yan, Tie Ning, "Love and concern for humanity: Tie Ning's interview". *Novel Review*, 3(2004):22-28.
- Chen HongFang, *Commonality and individuality of female narrative: comparison of novel creation by Wang An Yi and Tie Ning*. KaiFeng:HeNan University Publishing House, 2005.
- Cho HongYing, "Love Her or Hate Her?—The Image of Bai Daxing from the Perspective of Both Sexes". *Journal of KaiFeng University*, 3(2007):26-28.

- Shen JingMei, “A discussion over women's benevolence under patriarch: about Bai DaXing's benevolence”. *Journal of Tianzhong*, 6(2008): 75-76.
- Xiao Chang-wei, “Maternity? Women? -- Another Interpretation of BaiDashing in How Far Is Perpetuity”, *Journal of GuiZhou University Technology*, 3(2008):133-135.
- Chen XiaoMing, “Self dissimilarity and a ghost of romanticism”. *Contemporary Writers Review*, 3(2010):76-94.
- Fan KeJie, “Fear and hope forever”, *Novel Review*, 3(2012):18-21.
- Ailee Cho, “Nomad Space and Woman: Kate Chopin's The Awakening”, *British and American fiction*, 11.2(2014):105-121.

### <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BaiDaxing(白大省)'s desire to change, meaning of it and an aspect of women's survival appeared in the process of realizing desires. Baidaxing's desire goes through the process of ‘becoming a good person’, ‘becoming-Xidanxiaoliu(西单小六)’, and ‘becoming a mother’. Her attempt to ‘become-something’ is a gesture trying to escape from the framework that defines her. However, it is distorted since she has been bound by the frame of patriarchy, failing to realize her desires and further generating alternative life. Through this, Tie Ning(铁凝) shows an aspect suggesting women still are the subject of ‘being showed’ and the fact of women's life internalizing it. In this sense, BaiDaxing's perspective on the reality of women's survival and the self-awareness of women coping with that fact is quite cold and objective. The meaning of BaiDaxing's description as a description of

women's survival is in the very fact. However, the fact that Tie Ning concluded BaiDaxing's desire to change by 'becoming a mother' and granting meanings to it is somewhat problematic in that people can project emotional expectations of patriarchy internalized in 'mother' to women. This can lead numerous 'BaiDaxing' to settle in the 'territory' in which patriarchy assigns women by beautifying them into 'goodness' that human should preserve and maintain.

Key Words : 욕망(desire), 호인 되기(becoming a good person), 西單小六-  
되기(becoming-*Xidan xiaoliu*), 어머니 되기(becoming a  
mother), 가부장제(patriarchy), 영토화(territorialization)

